

가정예배 · 구역예배

3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3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전(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벤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낚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사순절기(2.25~4.11)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난의 십자가

해골모양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들
그 중 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무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이미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확정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셨고
몸속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내십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순종과 사랑뿐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고난뿐인 십자가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아픔뿐인 십자가의 은총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신비롭습니다.

2009년 3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 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로 인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고생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을 향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우리를 이기었다”(3절)라고 말합니다. 결코 윤택하지 못한 초장이나 어려운 삶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귄에 실패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실패로 인생이 끝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실패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3절).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부르시고 당신의 뜰에 살게 하시며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4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섭리와 간섭을 체험합니다. 또한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귄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실존적 삶이 되길 원할 때 그 답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시 65: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제2차 성찬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딤후 1:10).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5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으로 주어진 출애굽의 사건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고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9절)라는 말씀은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시인처럼 은을 단련함 같이(10절), 허리에 어려운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있어도(11절), 우리의 머리를 사람들이 타고 가는 고통(12절)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12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1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시 66:20)

기도 제목 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 복음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이스라엘의 장막절 기간에 낭송되었고 후에는 추수 감사 찬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가 결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열방에게 전파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구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 세계 만민이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1~3절), 열방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기를 간구하고(4절), 열방이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5~7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기원은 사망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지고 있고 그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마 28:18~20). 이 사명은 모든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성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전파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시 67:1)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시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으로 인한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궁극적인 승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18절).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보호하심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시인은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19절)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실패와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고후 4:8~9).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란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는 고초와 그로 인한 고통 및 근심 또는 죄악을 말합니다(민 11:11).

하나님께서 이러한 집을 날마다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찢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 몸이 상하셨기 때문입니다(사 53:4~5). 날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직 바라고 소망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히 12:2)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시 68:19)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출현전도대 훈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정병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다윗의 인생 말기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며 그로 인하여 영육 간에 매우 곤고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곤고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구원을 청합니다. 동시에 이 시는 죄인을 위해 고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로 낮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며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 상황과 고난을 상징하는 물이 자기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1절). 지금 다윗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2절). 계속하여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합니다(3~4절).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메시아의 고난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5절) 그리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29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 받아 주를 위해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시 69:33)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애원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1절). 때로 우리도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쉽게 자신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가 많고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권고는 염려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6~8).

시인은 매우 위급하고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한 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시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5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시 70:4)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들의 반란으로 쫓기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며 현재와 미래에도 베푸실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5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9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14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시인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와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15~1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복하며 회개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나 체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 자유를 누리며 소망 중에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의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뛰어나가 예수님을 주라 증언하게 됩니다(요 4장).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시 71:20)

기도 제목 ① 고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위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마 16:24)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나타났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코로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참된 공의를 실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의롭고 진리가 되시는 분으로서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가장 공평하게 대우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슥 3:5). 비록 현재 다소 불의한 상황이 남아 있고 주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불꽃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시 72:2)

기도 제목 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사양성부 및 찬양대원양성부 과정에 은혜를 주셔서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아삽의 입을 통하여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모순된 현실로 인하여 깊은 탄식을 토합니다. “불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12~13절). 이러한 고백은 비단 시편 기자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악인이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 역시 이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16절).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17절).

마침내 시인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비록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구하지 못하며 종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부활의 주요 심판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20절). 사람이 꿈꾸는 동안 그것이 현실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꿈이 깬 후에는 그 꿈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불타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시 73:26)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월 요새벽기도회의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아삽 자손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와 세상과 죄와 싸워야 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대적의 모습을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5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죄가 승리하여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본문은 바벨론과 싸울 힘이 없는 유다의 백성들을 ‘멧비둘기’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바벨론을 ‘들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19절). 들짐승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멧비둘기이지만 그것의 소유는 주 하나님입니다. 비록 들짐승의 위협이 있지만 가난한 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롬 8:35). 비록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시 74:12)

기도 제목 ①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경은 오만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 거듭 경고합니다. 이 시도 이런 성경의 교훈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7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감찰하시며 그 행위를 지켜보시고 종국에는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거나 비천하게 되는 것, 흥하거나 망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의 배후에는 재판장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빌 2:6~11).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시 75: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깨닫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꺾고 자기 백성을 지키심으로써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9절). 주님은 언약백성의 대적자를 철저히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온 세상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모든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환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를 위해 때가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온갖 시련과 핍박이 닥쳐와도 겸손히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만이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해 지지 않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시 76: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모든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극심한 환난이 계속되어 영혼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고통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고난의 깊은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10절)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이 마음에 밀려올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 연약함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때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사를 회상하며 자신의 마음에 생겨난 의심을 제거하고 더욱 담대하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상황이 열악할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히 4: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며 감찰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좇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시 77: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정결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해 주는 역사시이며 교훈시입니다. 단순한 역사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즉 불신앙과 반역을 다룬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선조들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시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6절). 시편기자는 태어날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불순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자손들에게 남겨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7절).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벧전 1:3).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총이 임하였습니까? 인류역사 속에 가장 기쁜 소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후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주변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 78:4)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
번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적에 의해 잔인하게 파괴당하고 그 대적자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탄식하며 적들을 징벌함으로써 주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민족에게 짓밟히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한 사실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9절).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나라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또한 이방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나라의 모욕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경건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마 9:2 : 막 2:5).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진정한 통회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시 79: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방군대에 의해 파괴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3절). 이 구절은 3,7,19절에 반복하여 나옴으로써 후렴구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달라는 말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호의를 갖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비취주시기를 바라는 ‘주의 얼굴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속에 비취는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 도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낙심과 좌절입니다. 이 늪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빛으로 다가올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소망의 견고함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 80:7)

기도 제목 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삽이 지은 시로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민족적인 큰 절기에 불러지던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할지어다”(1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높이 노래하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감격과 벅찬 감동의 외침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며 즐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만족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풍요와 권세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보혈을 덧입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시 81:1)

기도 제목 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불의한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악을 조장합니다. 시인은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8절). 하나님만이 공의의 재판관이 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시니 당연히 그들을 심판하실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불의한 자가 승리하고 번영하며 안락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며 조롱받으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 이 세상에는 마침내 완전한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악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시 82:1)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수요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 음모는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위치를 빼앗으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침묵을 깨고 일어나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1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갈 4:4).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불의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요 8:6).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 침묵은 심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시 83: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십자가 복음만 증언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우리는 복에 대해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와 축복이 있는 곳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1절). 시인은 성전을 ‘주의 장막’(1절), ‘주의 궁정’(2,10절), ‘주의 집’(4절)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시인이 사모한 실체가 성전 건물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은총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물 자체는 사모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이나 교회가 가치있는 까닭은 그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성전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21).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시며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와 안식과 진정한 교제를 주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 84:5)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후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1~3절)와 지속적인 회복에의 간구와 소망(4~13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의 포로였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망령된 데로, 허탄한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단순히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미래,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13절)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시 85:8)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 소개한 누가는 사도행전에 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성장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명령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이해할 때에 1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바, 1장을 기점으로 하여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장은 본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1장은 머리말(1~5절), 예수의 승천(6~11절), 다락방 기도(13~14절), 가롯 유다의 종말(15~19절), 사도로 뽑힌 맛디아(20~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의 어긋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인데(6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계만방으로 퍼져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역에 제자들이 주역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전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오직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복음위에 더욱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오순절이 이르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본격적인 전도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체험하셨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1~13절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1~13절), 성령강림 이후에 변화된 교회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4~4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 명이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약속(38절)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으로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증언할 때에는 모든 이방인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순전한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공동체가 보였던 결과에 대해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47절).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세우며 자신을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기도 제목 ①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으로 교제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 사임을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복음전파에 주력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왕되어 나가며 자연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은 앓은뱅이 치유 사건(1~10절), 이 기적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11~16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17~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앓은뱅이 치유사건을 계기로 행하여진 설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의 선포에서 시작하여 죄에 대한 회개로의 요청으로 진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 의미, 죽음, 부활, 승천 등 기독교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때에는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구걸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앓은뱅이에게 육신의 양식을 얻는 것이 급하고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차치 무관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미문에 앉아있던 결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성도들은 당장 급하다고 하여 땅의 일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도와줄 때에도 물질이 아니라 먼저 생명의 복음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혼의 양식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의 시작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앓은벵이 절인을 치유한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핍박이 오히려 복음이 널리 확장되고 내면적으로 성장하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1~4절), 베드로의 지혜로운 변증(5~12절),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13~22절), 감사와 찬양의 기도(23~31절), 나눔 공동체(32~3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권주의자들이 위협하는 말을 들은 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19절)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옛 자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가 삶 속에 살기 때 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두려움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험산 준령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 하심을 믿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기도 제목 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오순절 성령강림을 계기로 시작된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특별히 4~7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흥왕하고 복음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육적 소욕으로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1~11절), 교회 내적인 시련에도 사도들을 통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모습(12~16절),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내용(17~42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당시 초대교회는 순전하고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통용하며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의 사랑을 배반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흔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망각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배반하는 일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차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행 5:4)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한 시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점점 흥왕해지는 교회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고 더욱 선교에 충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조직과 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으로 분출되었지만, 이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요 이방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고 이들의 유입으로 교회안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내부의 조직과 체제를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열두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곱 집사'의 피택(1~7절). 후반부에는 그 집사 중 한 명인 스테반의 모습(8~15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집사'는 '종',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사도와 장로들을 도우며, 예배의식을 도왔습니다. 우리 역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감사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받은 은총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죄인들을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총에 진실로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의 의견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행 6:3)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마음을 본 받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
람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
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촉구한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전에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초대교회는 태동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날로 부흥하는 역사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주위의 성읍들에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영내에서만 국한되어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교훈(1~7절), 요셉의 교훈(8~16절), 모세의 교훈(17~36절),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37~43절),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44~53절)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피흘려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도 이와 유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는데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확장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합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행 7:59)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세움받은 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1절). 그 핍박의 중심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다(3절). 심지어 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행 22:4). 그러나 하나님은 큰 핍박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4절).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빌립의 전도와 행하는 표적을 보았고 전도의 열매도 맺혀집니다.

사마리아 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8절). 몇 년 전에 사마리아 땅에 큰 빛이 비취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곳(동네)에 가셨을 때 물을 길으러 나온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요 4:13~14). 그러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또 한번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롬 10:17).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 빛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행 8: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공동의 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 에수의 종들을 세워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믿었습니다(요 16:2). 사울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좇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하여 길을 갑니다(2절). 그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4절).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가문의 사람이며 학문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주님의 종이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 앞에 사울은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행 9:22)

기도 제목 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해서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2절). 늘 기도하던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천사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거하는 움바에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한편, 이틀 후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9절). 그 환상 가운데 가증한 짐승이 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몰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이르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19~20절).

당시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율법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36~3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41~42절). 하나님은 죄인이며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행 10:34~3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교회력

(敎會曆, Church Calendar)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성탄절 등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절기는 교회력의 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른 설교와 각각의 절기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교회력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교회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1년 주기로 기념하기 위하여 기독교인 사이에 형성된 교회의 달력이다. 그 1년을 전례역년(典禮曆年, Church Year)이라고 한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3대 축일 중 유월절과 오순절을 계승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후 50일째에 일어난 성령강림을 매년 기념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2대 축일인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이다. 특히 세례 준비를 위하여 성경 중에서 필요한 낭독 부분이 선택되고, 약 40일간 세례 준비를 하였는데, 이것이 사순절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새로운 신자의 성례 교육을 위하여 적합한 성서의 낭독 부분이 택해졌는데, 이것이 부활절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이라는 구약 이래의 현현(顯現)의 신비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현(公顯)으로 이어져 크리스마스와 공현절이 생겨났다. 사순절과 부활절의 형태를 본받아 대림절과 성탄절도 생겼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기념하는데 초점이 있다.

1. 대림절 (Advent, 待臨節)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이다. 이 기간 중에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회개를 비롯하여 여러 모습으로 준비하는 기간이다. 'Advent'의 뜻은 '오신다' (Coming)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성탄절을 기점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적 강림의 기다림이다.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기다림이다. 세 번째로 세상 끝 날에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대림절인 것이다. 기간은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시작하여 성탄절 전까지 4주간 지킨다(2009년 11월 29일).

2. 성탄절 (Christmas, 聖誕節) 현재와 같은 성탄절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없었다. 이 날은 '이교들이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동지'를 택하여 태양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후 4세기에 이르러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였고 로마에 의해서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

의 탄생일로 지키게 되었다. 기쁨의 절기인 성탄절은 '이 땅의 주권자,'
평화의 왕' 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다. 기간은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지킨다.

3. 공현절 (Epiphany, 公顯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공현절은 1월 6일부터 약 8주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을 강조하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1월 6일에 시
작하여 성회 수요일까지 지킨다.

4. 성회 수요일 (Ash Wednesday) 사순절의 첫 번째 날로서 고난과 부
활에 대한 준비일로 이 날 참회자의 머리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했
다(2009년 2월 25일).

5. 사순절 (Lent, 四旬節)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5주간
계속된다. 이 때에는 교회의 금식 기간을 설정하여 회개와 함께 깨끗한
분위기 속에 부활절을 준비한다. 대림절이 성탄절의 준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성회 수요일에서 부활주일
전 날까지 46일(주일 포함)간을 지킨다(2009년 2월 25일~4월 11일).

6. 수난주간 (Passion Week) 부활주일 전 일 주일 간을 말한다. 그리
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기간이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으로 종려주일에서 부활절까지의 기간이다(2009년 4월 6~11일).

7. 성 금요일 (Good Friday, 聖 金曜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기념
하여 해마다 수난주간 중에 이 날을 기념한다. 이 날에는 금식과 참회를
하며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한다(2009년 4월 10일).

8. 부활절 (Easter Day, 復活節) 부활의 아침부터 약 50일간 계속되는
절기이다. 교회력은 매년마다 춘분 이후 보름달이 뜨는 날 다음 주를 부
활주일로 정하고 있다(2009년 4월 12일). 이 날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

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와 약속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부활주일에 시작해서 일곱 주일을 포함한 50일간 지킨다.

9. 오순절 (Pentecost, 五旬節) 삼위일체 주일을 비롯하여 시작되는 이 절기는 대림절 첫 주일까지 계속되는데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긴 절기이다. 현대에 와서는 교회력의 전반부를 차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수난, 부활, 승천을 강조하였다.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를 성도들이 실생활을 통해 체험하도록 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기간이다.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한다.

10. 성령강림절 (Whitsuntide) 성령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이다. 부활일로부터 50일째, 승천일로부터 10일째에 해당되는 주일에 시작되어 한 주간을 지킨다(2009년 5월 31일).

11. 삼위일체주일 (Trinity Sunday) 성령강림으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이다. 성령강림일 다음 주일 이후부터 대림절까지를 삼위일체절(Trinity Season)이라고 한다. 교회력의 절반을 마치면서 후반을 시작하는 절기이다

교회력은 교회의 전통만을 내세운 예식이 아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세밀하게 기념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다. 현재 우리는 사순절기(2.25~4.11)를 지내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지는 은총을 누리기를 바란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 1:19~21). 아멘.

구역예배

3월 구역교재 초점

고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을 유혹하던 악한 영들이 우리 곁에서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 권력 또는 생명을 위협하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심하여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에만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십시오. 잠시 당할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No!”를 외칩니다. 반면에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며,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Yes!”를 외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227	눅 22:14~20	최후의 만찬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하자
0306	눅 4:1~2	그리스도의 시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자
0313	롬 15:4	놀라운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소망하자
0320	사 64:10~12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자
0327	행 4:31~33	하나님의 능력	기도, 사랑, 전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최후의 만찬

| 초 점 |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하자

| 찬 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누가복음 22:14~20

¹⁴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¹⁵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
고 원하였노라 ... ¹⁶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
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¹⁷저녁 먹
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
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 사순절기(2.25~4.11)에 임하는 나의 다짐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식사는 생전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최후의 만찬이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눅 22:15~16

※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최후의 만찬에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눅 22:18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_____
_____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
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만찬을 다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만찬을 우리와 함께 나눌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마 26:29 /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만찬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히 10:19

떡을 들고 감사기도하신 후 말씀하셨다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몸을 상징합니다.

눅 22:19 /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_____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고전 11:23~24

떡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위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눅 22:42

잔을 들고 기도하신 후 말씀하셨다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눅 22:20 / ...이 잔은 내 ☐로 세우는 ☐ ☐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 13:1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증오했을 때 그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 25:42~43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마 28:20). 잔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 있습니다.

벧전 1:19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분명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으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후 18시간 후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고후 5:14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풍성한 제2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천국에서 소망을 두는 복음의 종이 되게 하소서

2과 그리스도의 시험

| 초 점 |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자

| 찬 송 |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 본 문 | 누가복음 4:1~2

㉮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우리의 삶은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 끊임없이 제한받고 좌절당합니다. 온 인류는 첫 번째 여인이 에덴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실패한 이래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 2:17

창 3:4~5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마귀의 길은 항상 죽음으로 이끕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사순절의 두 번째 주간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해 보십시오. (참조/눅 4:1~13)

마귀의 시험	예수님의 대답
1	1
2	2
3	3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을 지내신 후에 마귀가 접근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마귀를 첫 대결에서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사탄을 누르고 승리하셨습니다.

골 2:15

요일 5:4 / 무릇 _____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요일 2:15~17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존심, 교만, 방종, 탐심을 모두 버리십시오. 경험과 지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 16:24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마귀는 단지 일시적인 세상의 축복과 욕망, 성공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의 교활한 속임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골 2:8

고후 11:14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눅 4:1~2 / 예수께서 _____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_____
_____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
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에도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 14:26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한 모든 말씀은 성령의 음성을 청종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제나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는냐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 복음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보십시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마귀는 매순간 신자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낱알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약 1:27

마 25:34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시험해 오는 사탄의 공격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2. 매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3. 마귀의 시험에 빠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놀라운 소망

| 초 점 |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소망하자

| 찬 송 |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 본 문 | 로마서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 현재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의 기초를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이 약속하는 소망은 단순한 소원 수준이 아니라 아주 놀랍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경험해 온 것처럼 구원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없는 외인(엡 2:12)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엡 2:1~2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그분의 약속과 사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고전 15:19).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거듭나면 산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해 산 소망을 갖습니다.

벧전 1:3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 신자들은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요 14:19

요일 5:12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주님은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이 놀라운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 6:19

막 4:39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습니다.

요일 3:3 / 주를 향하여 _____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벧전 1:22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요일 1:7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_____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보혈을 통한 거룩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고후 7:1

요일 1:9

놀라운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딤후 2:13~14

고전 9:9~10 /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밟 가는 자는 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복음이 자신을 구원했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나눌 때 큰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다.

※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기쁨을 공유해 보십시오.

히 6:11

그리스도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분석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딤후 1:2

딤후 6:17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놀라운 소망으로 채우실 것이며 그 소망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2.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4과 주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 초 점 |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자

| 찬 송 |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본 문 | 이사야 64:10~12

⁽¹⁰⁾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¹¹⁾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¹²⁾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 64:10~12 /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_____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_____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_____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이사야의 절규에 공감이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압제자의 손에 죽을 때, 악한 자가 대량학살을 자행하고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때 등등 너무도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에 경험했거나 들었던 억울한 일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나라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반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딤후 2:11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온 세상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사 64:1).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롬 3:24~25

벧후 3:8~9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 6:10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 4:4~5

인류는 에덴동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창 3:15). 에덴동산에서의 타락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락 이후로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오차도 없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도 정확한 시간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그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 1:6~7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계획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믿음의 순종을 멈추지 마십시오.

약 5:8 / 너희도 _____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은 못 박힌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께서 못 박힌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 3:20 / 불지여다 _____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_____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한 상황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빌 2:6~8

마 11:28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많은 대가를 치루셨습니다.

※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루신 대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지 불평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나라와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출 때 우리에게는 참된 감사와 소망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현실에 맞춘다면 우리를 불평과 원망, 좌절과 실망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세밀한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요 14:23

왕상 19:12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영생을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할 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2.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5과 하나님의 능력

| 초점 |

기도, 사랑, 전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

| 찬송 |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 본문 | 사도행전 4:31~33

⁽³¹⁾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³²⁾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
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³³⁾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지금 나의 삶에 필요한 주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 마태복음 28:18~20, 빌립보서 4:13, 요한복음 15:5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관료들에게 항의했습니다.

행 17:6

행 16:20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우리는 기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행 4:31 / _____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장소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각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 10:44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눅 11:2~4

유 1:20

사랑의 능력을 입자

우리는 사랑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행 4:32 / 믿는 무리가 _____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물건을 공용하는 자비의 모습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았 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기초하여 움직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고전 13:4~7 / 사랑은 오래 □□ 사랑은 □□하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하고 모든 것을 □□으며 모든 것을 □□으며 모든 것을 □□하며 모든 것을 □□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존중하며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기초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무의미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사랑은 참으로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갈 5:6

전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전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행 4:33

사도들은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는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행 8:25

고전 1:23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새로운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지역사회, 지인들과 나누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빌 3:10). 복음전도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원인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입니다.

딤후 1:3 / 자기 때에 _____ 이 전도는 우리 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막 1:38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행 2:40~41

행 2:46~47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뒤흔드는 교회, 기도와 사랑과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되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전도하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 사랑, 전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 간절한 기도 |

1.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간구로 날마다 성경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놀라운 소망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약속들과 앞으로 성취하실 약속 곧 죽음 후의 삶,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 말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과 위로,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소원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경험해온 것처럼 구원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슬프게도 놀라운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엡 2:12).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1~2).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그분의 약속과 사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전 15:19).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미래가 주어진 것입니다.

거듭나면 산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해 산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 신자들은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정말 흥분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요 14:19).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히 6:19).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평온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그리고 그 즉시 모든 것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순결하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요한일서 1:7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

자”(고후 7: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게 합니다.

놀라운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복음이 자신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밟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전 9:9~10). 신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히 6:11). 복음을 나눌 때 큰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심을 이해 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딤후 1:2).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놀라운 소망으로 채우실 것이며 그 소망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3월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